

인들도 등장하고 있다. 세계 과학기술분야 권위 있는 학술지에 한민족 과학자들의 연구결과가 계속해서 게재되고 있고, 골프, 축구, 야구, 태권도를 비롯한 스포츠 분야에서 한민족 선수들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sup>9)</sup> 경제적으로 성공한 한상<sup>10)</sup>들도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며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며 세계한상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거주국의 한인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국인 한국과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한민족의 중요성을 인식한 한국 정부도 각 부처에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2년 이래 8회 개최된 세계한상대회를 비롯하여, 세계한인회장단 대회, 세계한민족정치인포럼, 차세대리더포럼, 한민족과학기술인대회,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회 등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정부의 중요한 글로벌 정책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은 모국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유신정권이후 한국의 정치과정에 소외되었던 300만명 규모의 재외동포들이 참정권이 회복되면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재외동포 참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2010년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선거범위, 투표 방법에 대한 여야 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한상대회는 글로벌 한상네트워크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모국 연계 경제 활동이다. 세계한상대회를 통하여 한상 상호간의 교류와 함께 모국 투자와 수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모국인 한국의 지역을 순회하며 이 대회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한상네트워크의 경제적 효과를 인식한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한상을 대상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한상대회 활성화를 통해 모국과의 경제협력효과를 더욱 증진시키고, 이를 토대로 정치적 영향력도 신장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III. 세계한상네트워크 구축과 세계한상대회의 성과

#### 1. 세계한상네트워크와 세계한상대회

한국정부가 세계 한민족에 대해서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한 것은 최근 10년 정도이다. 각 정당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주요 후보들이 재외동포 문제를 담당할 국가기관 설립을 공약으로 내 세웠지만 국가기관의 수립은 이루어지 못했다. 문민정부 시기

---

원으로 당선되었다.

8) 2008년 12월 연아파틴(김연아)가 캐나다 수상 스티븐 하퍼의 지명으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상원의원에 당선되었다.

9) 특히 골프 분야에서는 최경주, 신지애를 비롯하여 박세리, 장정, 박지은, 김미현, 미셸위 등이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한민족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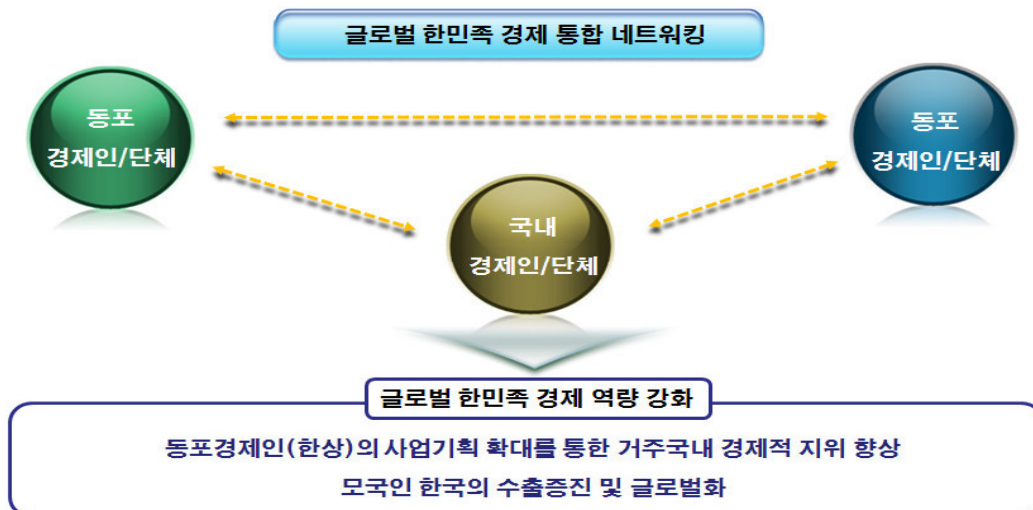
10) 미국 암백스 그룹 이종문, 레이니어그룹 홍성은, 로얄아이맥스그룹 정진철, 패코스틸 그룹 백영중,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의, 마루한 그룹 한창우, 카자흐스탄 카스피그룹 최유리,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의 벨라 박, 말레이시아 헤니퀸그룹 권병하,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승은호 등이 대표적인 한상들이다.

세계화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되었고, 1997년 외교통상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었다. 국민의 정부 시기인 1999년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2년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면서 ‘한상네트워크’<sup>11)</sup> 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국가과제로 제시하여 각 분야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글로벌코리아네트워크구축’으로 압축된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브랜드위원회의 10대 과제로 ‘글로벌코리아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선정하고 야심차게 추진중이다. 현재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주관기관이 되어 1단계를 진행 중인데 재외동포 정보제공 통합사이트인 korean.net에 연계하여 사이버 한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분야별 지역별 인물정보를 수집하여 db 구축 중이다. 이 통합 사이트는 on/off line과 연계된 상시지원체제의 수립을 통해 무역, 상공, IT, 과학기술, 법률, 벤처 등 분야별 업종별 통합 한상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한민족네트워크 다양한 분야 중의 하나인 세계한상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10년이 채 안되었지만 규모면에 가장 규모 있고, 경제유발 효과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세계한상네트워크는 이러한 한상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국내외 경제인들을 통합하는 글로벌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간에 교류 협력을 통해 한민족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상들은 모국인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거주국에서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모국의 기업들에게는 수출증진을 통해 글로벌화에 도움을 준다.

<그림1>세계한상네트워크의 구조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한상네트워크 구축의 오프라인 사업으로 여러 동포단체들의 대회를 ‘세계한상대회’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8회째 개최했다. 세계한상대회는 중국의 화상, 인도의 인상과 같이 세계 180여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한인 경제인들을 하나의 네

11) 한상(韓商)은 해외에서 제조, 상업, 무역, 금융, 기술 등의 경제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민족 경제인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제계 및 비경제계의 모든 한민족 동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트위크로 연결시키자는 취지로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제비즈니스의 장이다.

세계한상대회는 글로벌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해 주는 장점이 있다. 세계한상대회 기간 중 진행되는 중소기업 수출상품 전시회와 상담회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하려고 하였다. 부산, 제주 등의 지자체에서는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통해 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광역시도 세계한상대회를 2006년과 2007년 연속 유치하여 1억5천만 달러의 교역액을 제외하고도 매년 200억 이상의 직접경제효과를 얻었다. 제주도는 2004년도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한상대회를 유치하였다. 인천광역시는 2009년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하였고, ‘세계한인경제연구원’을 설립하여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싱크 탱크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림2> 세계한상네트워크와 세계한상대회



2010년 현재 8회째 개최 된 세계한상대회는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행사 전반을 준비하고 있다. 모국을 방문한 한상들에게 모국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친선도모’의 행사에서부터 한상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한 전시관 운영, 지역 중소기업 상품 전시 및 상담회 개최, 해외진출 성공 사례 발표 등의 행사가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세계한상대회의 특징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많게는 400여개 기업이 상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이 행사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에게는 수출 상담을 통한 수출효과, 선진 기술의 이전효과, 해외 바이어 발굴효과, 해외 시장정보 확보, 자본유치 등이 가능한 행사이다.

세계한상대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국내 투자유치, 상호 협력적 파트너 관계의 형성

등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한상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국가의 시장과 상품에 관한 정보교류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1998-2001년까지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미주한인상공인단체연합회 등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으로 ‘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참여단체간의 이견, 재정 및 행정력 부족 등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분열양상을 보였다. 이에 재외동포재단이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면서 세계 한상과 한상단체들을 모두 포괄하는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김재기, 2004).

## 2. 세계한상대회의 성과

제1차 세계한상대회가 2002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7차례 개최 되었으며, 제5차 대회에 이어 제6차 대회는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대회는 28개국 968명이 참가하여 한상네트워크 구축 기반 조성 및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제1차 세계한상대회는 40개국 1,263명이 참가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1> 세계한상대회 참가 국가 및 참가인원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상대회
일 시	2002.10.8-10	2003.10.6-8	2004.10.26-28	2005.9.12-15	2006.10월	2007.10월	2008.10월	2009.10월
장 소	서울 롯데호텔	COEX	제주컨벤션 센터	경기도 KINTEX	부산광역시 BEXCO	부산광역시 BEXCO	제주컨벤션 센터	인천컨벤션 센터
참가 국가	28개국	40개국	37개국	36개국	39개국	35개국	35개국	42개국
참가 인원	968명	1,263명	1,606명	1,517명	2,285명	2,800명	3,340명	3,505명

제3차 대회부터는 지방인 제주에서 개최되었는데, 37개국 1,606명이 참가하였다. 제4차 대회는 경기도에서 개최되었으며, 36개국 1,517명이 참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참가자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상담 실적이나 중소기업 참가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교역 실적이 증가한 결과를 얻었다. 제5차 대회는 부산에서 개최되었으며, 39개국 2,285명이 참가하여 개최되었다. 제6차 대회도 부산에서 개최되었는데 2,800여명이 참가하였다. 제7차 대회는 제주에서 개최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3,340명이 참가하였다. 제8차대회는 인천에서 개최되었고 3,500여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표-2>와 같이 한상대회의 교역효과에 있어서도 제4차 한상대회 1억 7천만불을 넘었으며, 제5차 2억5천7백만불, 제6차 4억2백만불, 제7차 5억 6천4백만불, 제8차는 7억 3천4백만불의 교역 실적을 보였다. 이는 행사가간 동안 투자유치금액과 수출상담액을 합한 것이다.

<표2> 세계한상대회 비즈니스 실적

	제1차 세계한상대 회	제2차 세계한상대 회	제3차 세계한상대 회	제4차 세계한상대 회	제5차 세계한상대 회	제6차 세계한상대 회	제7차 세계한상대 회	제8차 세계한상대 회
미팅건수	12	175	445	561	304	725	2,291	1600
금액	-	1억불	8천만불	1억8천7백 만불	2억5천7백 만불	4억 2백만불	5억 6천4백만불	7억 3천4백만불
참가업체 수	14	350	360	393	291	291	378	486

세계한상대회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대회에 대한 제주발전연구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산출 효과는 106억여원, 고용효과는 591명, 소득효과는 85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회 참가자의 소비지출증대로 인한 총산출은 79억여원, 고용은 445명, 소득은 59억여원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투자에 따른 총산출은 27억여원, 고용은 146명, 소득은 25억여원의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제주발전연구원, 2004:24-33).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이 발표한 제3차 세계한상대회에 대한 평가조사 결과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열렸던 제3차 세계한상대회를 계기로 1년간 재외동포기업 간에 이뤄진 투자규모가 총 5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기업 간에 이뤄진 투자내용을 보면 한국 내 기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총 109건으로 금액으로는 4억 9969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 대회에 비해 55.5%가 증가한 것. 또 재외동포기업이 제3국의 동포기업에 투자한 실적은 총 38건에 1 571만 달러로 집계됐다. 재외동포기업들 간에 이뤄진 수출입 등 교역규모는 총 5817만 달러로 지난해에 대비해 30% 증가했다. 이외에도 비즈니스 상담 건수는 전년도의 782건보다 210건이 늘어난 992건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05/8/25). 2009년 인천에서 개최된 제8차 세계한상대회에서는 한상과 국내 경제인 간 1천619건의 상담과 4억 1천880만 달러의 상담액을 기록했으며, 실제 계약액도 7천373만 5천500달러를 올렸다. 2008년 제주 대회에서는 실제 계약액이 5천900만 달러였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세계한상대회 인천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자료를 통해 생산유발 887억원, 부가가치유발 373억원, 고용유발 효과 624명 등 모두 1260억원에 이르는 경제 파급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200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조사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도 한상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유발총액은 7,800억원이고, 2003년도 부가가치총액은 3,073억원에 달해, 한상이 창출한 부가가치유발총액은 1조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204).

2007년 부산발전연구원의 제5차 세계한상대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도 개최시 소요된 사업집행액과 참가자들의 소비지출액에 따른 총생산유발액은 17,733백만원, 총부가가치유발액은 8,077백만원, 총소득유발액 3,777백만원, 총취업유발액은 493명, 총고용유발인원은 239명으로 추정하였다. 10월부터 개최되는 제6차 부산한상대회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추정하였는데, 총생산유발액을 20,293백만원으로 추정하였다(김성주·이선영, 2007:12-21).

세계한상대회를 주관하는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2007년 제6차 부산한상대회에 참가한 한상 1200명 중 345명을 대상으로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31조 4387억원에 이르고 발표하였다. 이들 한상들이 2006년 기록한 매출 31조 여원은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7년 예산 중 국방(23조원), 수송 및 교통(28조원) 예산을 웃도는 금액이다. 국내 대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2006년 기준 삼성전자 매출 58조원의 절반을 상회하고, 현대자동차 매출 27조원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특히, 작년 한국 GDP(8880억 달러)의 3.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을 맡고 있는 아마젠그룹의 최종대 회장은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약 1천 6백억엔(1조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미국 LA 한인회를 이끌고 있는 뉴스타 부동산그룹의 남문기 회장도 작년 매출 30억 달러(약2조 7천억 원)를 기록한 새로운 거상이다. 한편, 미국 월셔은행 고석화 이사장은 지난 한해 동안 20억 달러(1조8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일본 레저기기 리사이클 분야 최대 규모 YUKO 그룹의 김용해회장도 지난해 2천 2백억엔(약1조 8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일본 최대의 파친코 그룹 마루한의 한창우회장 (16조원), 인도네시아 '밀림의 왕' 코린도그룹의 승은호 회장 (8,170억 원), 고려인3세이자 복싱선수 출신인 카자흐스탄 코스피그룹 최유리 상원의원(약 8천억원)도 눈에 띈다. 또, 스페인 인터불고그룹 권영호회장(약 9,500억 원), 라오스 민간그룹 재계순위 1위인 코라오그룹 오세영회장(약 1300억원), 단돈 50달러로 시작해 미국의 '철강왕'이 된 미국 패코(PACO)철강의 백영중 회장(약 1,425억원) 등 세계 속에서 한국인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 쟁쟁한 거상들이다.

2008년 한상대회의 성과 중에 하나는 '한상 달러 모으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외화통장 개설 운동을 시작한 한상대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하고 연말까지 2000만달러를 국내 계좌로 송금하기로 결의했다. 한상들은 세계 각지의 한인회와 함께 연말까지 '고국에 달러 보내기 운동' '외화통장 개설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같이 세계를 무대로 경제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한상들은 모국 투자와 수출증대를 통해 모국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국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한상대회와 같은 전시회는 기업의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자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수단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점차로 증가

하고 있다. 이는 전시회가 제조업체와 바이어간의 만남을 극대화 한다는 점에서 비용대비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수출의존형 경제발전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한상대회와 같은 국제적 전시회를 무역 거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IV. 세계한상대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1. 세계한상대회의 문제점

세계한상대회가 8년의 일천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많은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을 순차적으로 오가면서 개최되는 한상대회는 중소기업의 상품들을 세계에 소개해주는 해외마케팅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유능한 학생들의 취업에 관심을 갖고 해외취업박람회도 동시에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한상대회가 갖는 문제점도 많다. 첫째 내국인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표-3>과 같이 2010년 세계한상대회를 주관하는 재외동포재단이 발표한 내국인의 세계한상대회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주요 광역도시에서 개최된 바 있는 세계한상대회에 대한 인지도가 31.8%라는 것은 그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세계한상대회를 두 번이나 개최한 부산에서 다른 광역도시보다 매우 낮은 25.4%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반면 세계한상대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광주에서 가장 높은 46.7%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글로벌수준의 다양한 한상네트워크들을 정교하게 네트워크 구축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규모가 크고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 미국의 경우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한인상공회의소가 있고, 전문 분야별로 한상단체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식품상협회, 미용재료상협회, 무역인협회, 변호사협회, 회계사협회, 금융보험인협회 등이 조직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조선족 상공인협회가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중국한국상회도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여기에 옥타나 기독교실업인단체인 CBMC 등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단체 상공회의소와 총련계 조상공련으로 크게 분리되어 있으며, 최근 뉴커머들로 구성된 한국기업가협회도 활동을 하고 있다. 한상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글로벌 수준의 네트워크인 세계한인무역인협회(World-OKTA)나,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협회, 세계한민족 IT 및 벤처기업가협회 등의 동업종 네트워크와 교류협력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가별, 영역별로 분산된 한민족 경제단체들을 글로벌 수준의 통합네트워크로 구축하는 작업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표-3>내국인들의 세계한상대회에 대한인지도